

# ‘올림픽 스타’ 총출동...제105회 전국체전 경남서 개막

17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 등  
2만8153명 49개 종목 열전  
광주 1424명·전남 1748명  
광주 10위·전남 상위권 목표



제105회 전국체전이 11일부터 17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 등 경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전국체전에는 총 2만8153명(선수 1만9159명, 임원 8994명)의 선수단이 47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 종목에 참가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3172명(선수 2211명, 임원 961명)의 선수단이 나서 49개 전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광주는 총 1424명(선수 1081명, 임원 343명)이 출전해 종합 순위 10위를 목표로 달린다. 지난해 대회에서 종합 11위를 기록했던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400m 계주 4연패와 '허들 여제' 정혜림의 9연패에 도전하는 광주시청 육상과 지난해 7관왕을 기록했던 체조 문건영(광주체고 3년)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최식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다. 이 대회는 오는 17일까지 경남 등 17개 시도에서 선수 1만9159명과 임원 8994명 등 2만8153명이 참가해 경남 일원(주 개최지 김해)서 열린다. /경남신문·성승근 기자

전남은 총 1748명(선수 1130명, 임원 618명)이 참가해 종합 4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체전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남은 무안군청 검도, 한국전력 럭비, 순천제일고 배구, 광양여고 축구, 영암군청 씨름 등에서의 활약을 앞세워 이번 전국체전에서 총 184개의 메달(금 46, 은 36, 동 103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은 변수가 많은 큰 골프, 궁도, 불링 등 일부 기록 종목과 득점 폭이 큰 검도, 배구, 야구 등 단체 종목에서 선전할 경우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지난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스타들도 대거 출전하며 열기를 더한다.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청주시청)과 임시현(한국체대)을 비롯해 펜싱 오상욱(대전시청),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 사격 김예지(임실군청), 유도 허미미(경북체육회), 역도 박혜정(고양시청) 등이 전국체전 무대에 오른다. 특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 지역의 위상을 높였던 광주·전남 소속 선수 12명도 모두 이번 체전 무대를 누린다. 광주에서는 근대5종 전태우(광주시청), 펜싱 강영미·김재원(이상 광주시청), 유도 이혜경(광주교통공사),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더솔)이 참가한다. 전남에서는 근대5종 서창완(국군체육부대), 세단뛰기 김장우·사격 조영재(이상 국군체육부대)를 비롯해, 펜싱 최세민(전남도청),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복싱 임예지, 배드민턴 정나은(이상 화순군청)이 출전한다.

이번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은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사전경기를 통해 이미 메달 레이스를 시작했다. 광주선수단은 사전경기로 치러진 태권도와 배드민턴 경기에서 10일까지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에서 김혜규(-58kg·조선대)와 이지후(-87kg·문성고)의 금메달을 포함해 총 12개(금2, 은2, 동8)의 메달을 획득했고, 배드민턴에서 2개(은1, 동1)의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 역시 사전경기에서 총 11개(은2, 동9)의 메달을 획득하며 기본 좋게 대회를 시작했다. 태권도에서 은1, 동8개, 배드민턴에서 은1개, 동1개를 획득했다.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회장은 "사전경기 태권도에서 첫 금메달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있을 본 경기에서도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체육회 송진호 회장은 "지난해 제104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 및 상위권 입상 등의 기운을 이어받아 이번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지원해 전남의 명예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최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최식에서는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비롯해 장운정, 하모니이즈, 김다현 등 초대 가수들의 공연 또한 펼쳐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발목 골절’ 이겨낸 문건영 “올해도 7관왕 해야죠”

### ‘광주체고 양학선’ 지난해 체전 기계체조 대기록 달성

지난해 전국체전 '7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문건영(광주체고 3년·사진)이 발목 골절 부상을 이겨내고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한다. 문건영은 지난 제104회 전국체전 기계 체조에서 무려 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대회 역사상 첫 '7관왕' 대기록을 작성했다. 문건영은 "작년에 해놓은 게 있어서 이번에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 마음을 동기 삼아 어떻게든 잘 해야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건영은 최근 발목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강한 의지와 꾸준한 재활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지난 5월 열린 제11회 시니어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문건영은 도마 종목 결선 착지 과정에서 양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번 체전을 준비하며 발목 근력을 키우는 등 재활에 온 힘을 쏟았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해서 걱정이 많았다. 특히 발목을 자주 다친 경험이 있어 이번 부상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고 부상 당시를 회상한 문건영은 "생각보다 빠가 잘 붙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



다. 지금은 예전에 하던 기술들을 다시 성공하고 있다.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문건영은 '체조 삼 형제' 중 막내다. 그의 첫째 형 문경록(포스코)과 둘째 형 문경수(공주사범

대) 모두 현재 체조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 문건영은 "첫째 형이 체조를 먼저 시작했고, 둘째 형도 뒤이어 체조를 하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 체조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체조 유망주로 불리며 '제2의 양학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문건영은 앞으로 6종목 모두에서 빛나는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다. 특히 평행봉을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꼽은 문건영은 "어릴 때부터 평행봉에서 메달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한 종목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종목에서 고른 실력을 발휘하며 체조계에서 다재다능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며 "양학선 선수는 도마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뤘지만, 저는 모든 종목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다. 6종목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의 장기적인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다. 문건영은 "나중에는 올림픽에 나가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 그리고 양학선 선수처럼 체조계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고 싶다. 또 체조가 비인기 종목이라 이 종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건영은 오는 13일 경남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기계체조 남자18세이하부에서 단체·개인 종합 첫 경기를 치른다. 14일에는 마루·철봉·평행봉·도마·안마·링 등 6종목 결선이 진행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손흥민 없는 대표팀? ○○이 있다

### 공격 의존도 높은 손흥민 부재에 이라크전 걱정...이강인·황희찬에 기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몸 상태 관리 차원에서 결장한 지난해 페루, 튀니지전을 제외하고 대표팀은 17경기에서 총 34골을 넣었다. 이 가운데 12골이 손흥민의 몫이었다. 비율로 보면 약 35%다. 도움까지 포함하면 그의 발끝에서 나온 득점 비율은 더 커진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대표팀 공격이 손흥민의 골 결정력과 공격포인트 생산 능력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 손흥민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에 나서지 못한다. 10일 요르단, 15일 이라크와 대결하는 10월 A매치 기간, 손흥민은 영국 런던에서 다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회복에 전념한다. 손흥민이 A매치 기간 소집되지 못한 건 2021년 3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동아시아컵 경기를 제외하면 14경기를 손흥민 없이 치렀다. 이 14경기 성적은 10승 2무 2패였다.

29골을 넣었고, 6골을 실점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둔 경기로 지난해 10월 튀니지전과 2022년 1월, 2021년 9월 레바논전을 꼽을 수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지휘한 튀니지전은 4-0, 벤투 전 감독이 맡은 두 차례 레바논전은 모두 1-0으로 이겼다. 튀니지전에서 골 결정력을 발휘한 선수가 차세대 간판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었다.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자신이 크로스, 드리블 돌파 뿐 아니라 득점으로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후반 10분 직접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전매특허인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A매치 첫 골을 신고했고, 2분 후에는 페널티지역 안 경합 상황에서 추가 골도 넣었다. 2022년 1월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에서는 손흥민 뿐 아니라 황희찬(울버햄프턴)까지 부상으로 이탈해 측면 공격력이 떨어져

자 조규성(미트윌란), 황희조(알라니아스포르) 두 톱을 내세워 결실을 봤다. 이때는 최전방 공격수 두 명이 결승골을 합작했다. 전반 추가 시간 황희조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눈 슛 슈팅으로 연결했다. 2021년 9월 레바논과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는 황희찬이 해설사로 나서 공격을 풀었다. 손흥민 대신 왼쪽 공격수로 나선 황희찬은 특유의 돌파력으로 상대 측면을 허물어버리면서 승점 3을 가져왔다. 이 경기에서는 과감하게 수비 뒷공간에 롱 패스를 집어넣어 황희찬의 돌파력을 극대화했다. 조규성 등 최전방에 불박이로 나서던 선수들을 부상 등으로 쓸 수 없는 만큼 앞선 경기들처럼 이강인·황희찬의 분발과 이에 맞는 전술적 조정이 손흥민의 공백을 해결할 가장 좋은 수로 보인다. 이들에게 이번 A매치 연전은 '포스트 손흥민 시대'에 대한 팬들의 걱정을 불식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울 기회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 신상우 여자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여자축구대표팀이 '신상우'로 2026 아시안컵 준비에 나선다. 여자축구 WK리그에서 창녕 WFC와 이천 대교를 지휘했던 신상우(48·사진) 김전 상무 코치가 대한민국여자축구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가 10일 "지난 6월 폴린 벨 감독과 계약 종료 이후 공석이던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에 신상우를 선임했다"며 "계약기간은 2028 LA 올림픽까지이며 2027 여자 월드컵을 통해 중간 평가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광운공고·광운대 출신인 신상우 감독은 대전 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과 성남일화(현 성남FC)에서 선수로 활약했으며, 내셔널리그 김해시청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15년 여자축구로 무대를 옮긴 그는 보은 상무(현 문경 상무) 코치에 이어 2017년 이천 대교 지휘봉을 들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창녕 WFC 감독도 역임했다.

신상우 감독은 2022년 남자축구로 돌아와 김천상무 코치로 K리그2 우승에 역할을 했다. 지난 8월 새로 구성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통해 30명의 후보군을 검토, 최종 후보 5명을 선정했다. 이후 여자축구에 대한 경험 및 적합성, 전술적 역량과 철학, 향후 여자대표팀에 대한 계획과 비전 등 7개 항목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4차 회의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검토와 체점을 진행했고, 신상우 감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순위 추천을 받은 신상우 감독은 이사회 서면 결의로 승인을 받은 뒤 축구협회와 계약을 했다. 최영일 전력강화위원장은 "신상우 감독은 팀 구성 및 게임 모델에 대한 확고한 축구 철학을 갖고 있다. WK리그에서의 지도자 경험, K리그 승격 경험 및 K리그 상위 팀 지도 경험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우 감독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일본 여자대표팀과의 친선경기를 통해 사령탑 데뷔전에 나선다. 일본 원정 경기에 나설 대표팀 명단은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